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육방법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하 유 라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육방법

오 종 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하 유 라

인 준 서

하유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16세기 말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왕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남긴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이 끝나자 사회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신뢰를 되찾아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 반면 백성들은 전쟁으로 토지와 노동력 등의 생존기반을 잃고서도 여전히 막중한 세금납부의 의무를 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에 세자로서 분조를 이끌며 항진활동을 펼쳤다. 즉위한 후 광해군은 조선 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광해군은 즉위 초 초당파적이고 실무경험이 많은 관료들을 중용하여 그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때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와 광해군의 결정으로 공납제가 개혁되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광해군이 자신을 즉위시키는 데 공을 세운 대북세력 및 양반 지주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내린 결정의 결과였다.

공납제의 개혁이 중요시되었던 것은 국가재정의 수입원에서 공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방납의 폐단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에서 방납의 대안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사대동을 국가제도로 수용한 것이 대동법이었다. 이때 대동법은 경기 지역에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동법의 시행으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공납을 전결수에 따라 1결당 균일하게 쌀 16말을 내도록 한 점, 토지를 보유한 양반 지주들이 내도록 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든 점 등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하지만 광해군 시기 정치의 개혁적인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대북세력이 다른 정치세력과의 공존보다 정치권력의 독점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대북세력은 여러 옥사를 주도하고 나아가서는 조작·확대함으로써

다른 세력들을 정치에서 배제하여 갔다. 이어지는 옥사의 결과 임해군과 영창대군이 살해되고 인목대비가 유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에 대처하여 명과 후금과의 외교에서 후금과 대화를 시도하며 실리적인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명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며 후금과의 대화조차 반대하는 양반 지주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샀다. 게다가 광해군은 따로 징세를 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궁궐공사를 벌여 민심을 잃었다. 광해군은 점차 지지기반을 잃고 백성들과 관료들에게서 고립되었고, 결국 서인이 주도하여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학생들이 광해군 시기의 정치, 특히 정치 개혁의 하나로 시행한 대동법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전반적인 역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위와 같이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다음, 이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광해군 시기의 정치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토론식 수업을 제시하였다. 토론주제는 대동법의 시행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모둠별로 왕과 관료, 지주와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광해군 시기의 정치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II. 광해군의 정치개혁 시도와 좌절	4
1.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분조활동	4
2. 대동법의 시행	7
1) 대동법 시행의 배경	7
2) 광해군 즉위 초의 정국	10
3) 대동법의 시행과정	14
4) 대동법의 시행 결과와 의의	16
3. 대북세력의 독주와 정치 운영의 파국	18
III.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기술 비교	22
1. 임진왜란 후 광해군 시기의 정치	23
2. 대동법의 시행	28
3. 인조반정	31
IV.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육방법	34
1.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육방법 모색	34
2. 대동법의 시행에 대한 토론식 수업 지도안	37
V. 맺음말	44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광해군 시기의 정치 기술 내용	24
<표 2> 대동법 시행 기술 내용	28
<표 3> 인조반정 기술 내용	31
<표 4> 대동법의 시행에 대한 탐구활동	40

I. 머리말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 반정으로 폐위된 왕에는 연산군(燕山君)과 광해군(光海君), 두 명이 있다. 두 왕 모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연산군은 드라마 「왕과 비」, 영화 「간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광해군은 드라마 「화정」이나 영화 「광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광해군이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의 시초는 일제 강점기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광해군을 일본인 사학자인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1933년 「광해군 시대의 만주와 조선의 관계」에서 ‘택민주의자(澤民主義者)’로 일컬으며 그의 외교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 사학자들의 연구에도 영향을 끼쳐 그의 지도를 받았던 조선인 홍희의 1935년 논문 「폐주광해군론」, 이어서 이병도의 1959년 논문 「광해군의 대후금(對後金)정책」으로 이어졌다.¹⁾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주로 정치세력의 동향을 다룬 연구와 이덕형(李德馨)·이원익(李元翼)·이이침(李爾瞻)·정인홍(鄭仁弘)과 같은 인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²⁾ 그리고 이제는 제법 많이 알려진 광해군의 외교에 대한 연구³⁾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광해군의 분조(分朝)활동을 다룬 연구가 있다.⁴⁾

1)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27-28쪽.

2) 구덕희, 「선조대 후반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1988; 신명호, 「선조말 광해군 초의 정국과 외척」, 『청계사학』 10, 1993; 신병주, 「북인학파의 연원과 사상, 그리고 현실인식」, 『한국철학논집』 32, 2011; 신병주, 「선조에서 인조대의 정국과 이원익의 정치활동」, 『동국사학』 53, 2012; 신병주, 「광해군대의 정국과 이덕형의 정치, 외교활동」, 『조선시대사학회』 67, 2013; 오이환, 「광해군 초기의 정인홍」, 『퇴계학과 유교문화』 41, 2007; 우인수, 「조선 선조대 남북 분당과 내암 정인홍」, 『역사와 경계』 81, 2011; 우현구, 「내암 정인홍과 광해조 정국주도세력」, 『교남사학』 4, 1989; 이회환, 「광해군대의 정국과 이이침」, 『전북사학』 38, 2011;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1988.

3) 김광린, 「조선 광해군정부의 평화주의 외교정책」, 『평화학논총』 3, 2013;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역사학보』, 2007; 한명기, 「광해군-외교의 빛과 내정의 그림자」, 『한국사 시민강좌』 31, 2002; 한명기, 「광해군의 대외정책 재론」, 『한국불교사연구』 2, 2013.

대동법(大同法)에 대한 연구로는 1958년 정형우의 연구를 시작으로⁵⁾ 당시의 찬반 논의, 재정적 측면, 시행과정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 광해군 시기의 대동법에 대한 연구로는 이정철과 지두환의 연구 정도만 있다.⁶⁾ 광해군 시기의 정치를 주제로 한 역사교육학계의 성과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 편이 있을 뿐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다룬 것은 없다.⁷⁾ 이상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가운데 외교·정치세력·대동법 등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역사교육을 위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선행연구 중에서도 이병도의 1959년 논문은 지금까지도 광해군에 대한 교과서 기술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병도는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벌였던 외교를 ‘중립외교’라 칭하면서 광해군을 외교 전문가로 부각시켜 강조하였다.⁸⁾ 그 영향으로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서는 광해군 시기의 정치 부분을 외교 일변도로 기술하였다. 특히 광해군 시기의 외교를 ‘실리 외교’라고 기술한 지학사 교과서 외에 7종 교과서가 모두 ‘중립외교’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세자로서 항진활동을 펼쳤다. 즉위해서는 복잡한 정치지형 속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동법의 시행이라는 개혁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

4) 김정운, 「정탁의 『용사일기』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 사상과 문화』 62, 2012; 남도영, 「임란 때 광해군의 분조활동 재조명」, 『국사관논총』 9, 1989.

5) 정형우, 「대동법에 대한 일연구」, 『사학연구』 2, 1958.

6)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1984; 김옥근, 「대동법연구」, 『경제논집』 13, 1974; 김윤곤,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싼 찬반양론과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78, 1971;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한국사학보』 46, 2012; 이정철, 「오리 이원익과 두 번의 공물변통」,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이정철, 「광해군 대 경기선해법 성립과 확대요구」, 『한국불교사연구』, 2015; 지두환, 「선조·광해군대 대동법 논의」, 『한국사논총』 19, 1997.

7) 김민경, 「조선 광해군대의 정치적 대립」,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어혜순, 「광해군과 대북세력의 정치운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필원, 「광해군의 왕권강화책과 그 한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8)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27쪽에서 이병도의 논문을 재인용.

정세에 대처하여 명과 후금과의 외교에서 후금과 대화를 시도하는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자신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대북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해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무리하게 궁궐공사를 벌여 민심까지 잃었다. 결국 광해군은 인조와 서인세력이 광해군의 대후금 외교정책과 인목대비(仁穆大妃) 유평·영창대군(永昌大君) 살해를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킴으로써 폐위되었다.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고등학교 교과서 기술로는 학생들이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해군의 개혁으로 이루어진 대동법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이 광해군 시기의 정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가 광해군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학생들이 왕과 관료, 양반 지주와 백성의 입장이 되어 모둠별로 토론하는 토론식 수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해군 시기 대동법을 중심으로 한 정치에 대한 강의가 토론식 수업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대동법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광해군 시기의 외교나 이 시기에 활약했던 각 당파들의 구체적인 동향에 대한 구명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중심 사료로서 『선조실록(宣祖實錄)』과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중초본)과 『광해군일기』(정초본) 가운데 『선조실록』과 『광해군일기』(중초본)을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광해군의 정치개혁 시도와 좌절

1.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분조활동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시기에 2차에 걸쳐서 일본이 조선에 침입하여 명군까지 참전한 큰 전쟁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1차 침입이 임진년에 일어났으므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2차 침입이 정유년에 일어났으므로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전개된 전쟁 전체를 대체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임진왜란은 그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데는 1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바뀐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16세기 말 명에서는 사회모순이 극에 달했다. 환관의 정치 간여와 당쟁, 황족의 사치와 관료들의 부정부패, 개혁실패 등으로 조정이 혼란하였고 대규모의 기근이 일어나 장기화되었으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게다가 조정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자 여진족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성장하여 동북지역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명은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방을 강화하고자 세금 징수를 더 늘렸다. 이에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나 사회가 더욱 혼란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⁹⁾ 한편 일본에서는 15세기 말엽부터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가 쇠퇴하였다. 막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이후 약 100여 년간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잇키(一揆)¹⁰⁾가 일어나고 센고쿠다이묘(戰國大名)들이 난립하였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14일에 명을 공격하기 위한 길을 벌린다

9)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14, 148쪽 정리.

10) 잇키는 ‘마음을 합하여 행동한다.’는 뜻으로 일본에서 처음에는 무사들이 잇키를 결성하였다. 이후 점차 농민·승려·무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잇키에 참여하여 장원영주 등의 부당한 압박에 저항하였다. 이들은 후일 쓰치잇키(土一揆)라고 부르는 무장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서민교 외, 『일본사』, 대한교과서, 2005, 155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였다. 전쟁 초기에 조선군은 숙련된 전투경험과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에게 연이어 패배하였다. 4월 28일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稜)이 이끄는 조선군이 충주 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일본군에게 대패하였다. 이처럼 일본군이 빠르게 북상하자 선조(宣祖)는 민심 수습을 위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후 4월 30일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6월 13일 영변에 도착한 선조는 요동 망명을 주장하여 이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조정 관료들과 대립하였다. 이때 절충안으로 제기된 것이 조정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조는 망명을 전제로 조정을 분리하여 광해군에게 ‘분조(分朝)’를 맡겼다.¹¹⁾

이에 따라 광해군은 1592년 6월 14일부터 권섭국사(權攝國事)의 신분으로 분조를 맡아 종묘(宗廟)의 신주(神主)를 모시면서 전쟁을 수행했다.¹²⁾ 초창기의 분조는 영의정(領議政) 최흥원(崔興源)과 이헌국(李憲國)·정탁(鄭琢)·유자신(柳自新) 등 3품 이상 고위 관료 15명으로 구성되었다. 7월에 광해군이 강원도 이천에 도착하자 이일(李鎰)·이귀(李貴) 등이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였으며 피난 간 관료들까지 모여들었다. 이에 분조는 100여 명의 관료와 독자적인 군대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¹³⁾ 이후 광해군은 평안도·함경도·강원도·황해도를 다니며 백성들에게 조정의 건재함을 알렸으며 군사 모집·군량 확보·민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¹⁴⁾ 특히 광해군은 의병활동을 적극

11)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선조는 비망기를 내려 세자에게 임시로 국사를 다스리게 한다고 전교하였다.

12) 조선의 왕들은 즉위 후 명 황제의 책봉을 받기 전까지는 외교무대에서 권지국사(權知國事)라는 명칭을 썼다. ‘권섭국사’라는 표현은 직접 맡아 담당한다는 지(知)를 대신 맡아서 담당한다는 의미의 섭(攝)으로 고쳤을 뿐, 왕을 가리키는 권지국사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명칭상 광해군의 위상이 격상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계승법, 「세자 광해군-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2013, 218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13) 이때 분조에서 광해군을 보필한 사람은 유희분(柳希奮) 등의 처가 사람들과 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정창연(鄭昌衍)·김우옹(金宇顛) 등과 같은 군사·외교 전문 관료들이었다. (신명호, 「선조말·광해군초의 정국과 외척」, 『청계사학』 10, 1993, 13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14) 분조가 계속 이동한 것은 주변의 민심을 고려하는 한편 전황에 따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

적으로 지원하였다. 광해군은 진 이조참의(史曹參議) 이정암(李廷菴)을 독려해 황해도 연안성을 사수하도록 명을 내렸고, 당시 강화도에 있던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평양에 있던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고 평안도·황해도·강화도·진라도로 이어지는 항진 교통로가 확보되었다.¹⁵⁾ 또한 광해군은 관료에 대한 인사권과 상벌에 대한 업무를 선조로부터 부여받아 지방관의 부재로 행정이 마비된 지역에 관료들을 임명하고 도망간 지방관은 파면하였다.¹⁶⁾

6월말이 되자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무력한 관군을 대신해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에 맞섰다. 바다에서는 이순신(李舜臣)이 지휘하는 해군이 연승을 거두어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12월에는 명에서 파견한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명의 원군이 전쟁에 가세하였다. 1593년 1월 8일에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자 분조는 평양에서 7개월 만에 대조(大朝)와 합류하였다. 전쟁은 한양이 수복되고 일본군이 경상도로 후퇴하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 후 명과 일본은 3년에 걸쳐 강화회담을 진행하였다.¹⁷⁾ 광해군은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인 1593년 12월 명의 요청으로 사실상 두 번째 분조인 ‘무군사(撫軍司)’를 이끌게 되었다.¹⁸⁾ 이로 인해 광해군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며 병력을 모집하고 군량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1594년 8월 25일에 귀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회담이 결렬되면서 1597년에 일본군이 다시

한 것이었다. (남도영, 「임란 때 광해군 분조활동 재조명」, 『국사관논총』 9, 1989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15) 한명기, 「광해군의 대외정책 재론」, 『한국불교사연구』 2, 2013, 180-181쪽.

16) 김정운, 「정탁의 『용사일기』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 사상과 문화』 62, 2012, 198~200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17) 임진왜란에 대처하는 명의 목적은 중국본토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당시 명의 방침은 길으로는 싸우면서 안으로는 화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명은 조선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강화회담을 진행하였다. (민덕기, 「임진왜란의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한일관계사 연구』 36, 2010, 245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18) 『선조실록』 42권, 선조 26년 9월 19일 경오. 접반사(接伴使) 윤근수(尹根壽)가 명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세자를 경상도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음을 보고하였다.

조선을 침략하였다(정유재란). 그에 대응하여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의 북진을 막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퇴각하는 일본군이 노량에서 격돌하였다.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은 7년 만에 종결되었다.

임진왜란은 광해군의 세자 책봉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광해군은 선조의 13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로, 적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장자 임해군(臨海君)의 비행과 대군의 부재 등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이후 광해군은 분조활동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광해군은 관료와 백성들에게 폭넓게 지지를 얻으면서 세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반면 임해군과 순화군(順和君)은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왕실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선조 또한 전쟁에 대한 책임과 망명 시도로 권위가 추락하였다. 선조는 망명이 불발된 이후 의주에서 명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것에 주력하였는데 이는 지방에서 분조를 이끌며 전쟁을 수행하던 광해군의 활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로써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광해군과 선조 사이에 알력이 생기게 되었다.

2. 대동법의 시행

1) 대동법 시행의 배경

임진왜란은 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많은 인구가 살상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매매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으나 전쟁에 동원된 약 15만 명 중 사망자가 약 5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 일본에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후일 교섭으로 돌아온 사람은 7500여 명 뿐이었다. 토지의 황폐화 또한 극심하였다. 세종 때 약 160~170만 결이었던 전결수(田結數)는 16세기까지 150만 결 안

팍으로 유지되었으나 1601년에는 약 30만 결로 급감하였다.¹⁹⁾ 이러한 인구 격감과 토지의 황폐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재정 수입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조선의 국가재정의 운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모든 경비는 횡간(橫看) 및 공안(貢案)에 따라 지용(支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²⁰⁾ 국가재정의 수입원에는 크게 전세(田稅), 공부(貢賦), 요역(徭役)이 있다. 전세는 전결수에 따라 쌀·콩을 내도록 한 것이었다. 공부는 군현 단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물(貢物)과 진상(進上)²¹⁾으로 나뉘었다. 요역은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었다. 그중 조선 전기에 국가재정 수입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전세였다. 그런데 세종(世宗) 때 공법(貢法)이 제정되어 전세로 1결당 30말을 내던 것이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1결당 최대 20말에서 최하 4말로 차등적으로 내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백성들의 전세 부담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국가재정 수입원 중 전세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자 이후로는 공납(貢納)이 국가재정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²²⁾

공납은 토산물의 생산지를 조사하여 공안에 작성한 것을 토대로 군현별로 연 1회 부과되었다. 품목은 농산물·가내수공업제품·동물·해산물·약재·문구류 등 다양하였다.²³⁾ 그러나 공납제는 제도 자체와 운영상으로 여러 모순이 있었다. 첫 번째가 공안의 한계였다. 공안에 공물의 군현별 배정이 한 번 작성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 2014, 325-326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0) 공안은 1392년에 제정한 세입계산표로 전결과 호(戶)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20년마다 양전(量田)을 하고 3년마다 호적을 고쳐 파악하게 되어 있었으나 규정대로 잘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1464년에 세출예산표인 횡간이 제정되어 경비지출의 기준이 정해졌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428~430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1) 진상은 공물과 달리 관찰사(觀察使)·감사(監事)등의 지방장관이 왕에 대한 봉상(奉上)의 예물로 국가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왕실용 물품을 바치는 것이었다. 지방장관은 군현별로 물품을 마련하여 군수(郡守)·현감(縣監) 등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임명하여 사용원(司饗院)에 상납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466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2) 공법 제정 이후 공납은 전체 국가재정 수입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박도식, 『조선 전기 공납제의 운영』, 태학사, 2015년, 5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 2014, 458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되고 나면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가 규정의 미비 문제였다. 공납은 군현별로 납부하되 최종적으로는 호(戶)별로 전결수에 따라 부과되었다. 그러나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군현별·호별로 공납 부담이 불균등하였다.²⁴⁾ 따라서 권세가는 공납이 적게 부담하거나 아예 면제되었고, 이때 누락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는 토지 겸병에 따른 지주전호제(地主田戶制)의 확대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운영상의 문제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납(防納)의 폐단이었다. 15세기 말부터 백성들은 불산공물(不産貢物) 등에 대한 자구책으로 공납을 대납(代納)하였다. 즉 각 군현의 공리(貢吏)가 공물을 각사(各司)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관리·권세가·상인·각사의 이노(吏奴)·경저리(京邸吏) 등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그 값을 백성들에게 보상받았다.²⁵⁾ 그런데 대납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매우 많았던 데다 시장경제가 발전한 것을 계기로 불법적인 수단으로 공물을 강제로 대납하는 방납이 생겨났다.²⁶⁾ 이후 군현의 공납 책임자인 지방관도 방납에 참여하는 등 방납의 폐단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16세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대동(私大同)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²⁷⁾ 사대동은 군현에서 공물가(貢物價)에 해당하는 쌀·포를 균등하게 거두어 그것으로 공물을 구입해 공물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사대동은 기존의 공납보다 수납이 편리하였고 방납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점차 확산되었다.

24) 이정철, 『대동법-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4, 46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5) 방납은 중종(中宗) 때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안로(金安老), 명종(明宗) 때 우의정(右議政) 이기(李芻) 등 당대의 권세가들에게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1984, 182-183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6)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III, 일조각, 1997, 5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7) 16세기에 사대동은 대동(大同), 반대동(半大同), 수미법(收米法), 작미(作米) 등의 명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한국사학보』 46, 2012, 52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한편 조정에서는 선조 때부터 공납제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569년 9월 이이(李珥)는 사대동이 행해지고 있던 해주를 예로 들며 사대동의 법제화와 전국적인 확대를 제안했다. 즉 전결수 1결당 쌀 1말씩 거두어 관에서 직접 공물을 조달·상납하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방납인들의 반대로 이미 사대동이 시행되던 해주·송화에서만 유지되었다.²⁸⁾ 1594년에는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이 기존의 공물·진상 납부를 폐지하고 군현별로 1결당 쌀 2말을 균일하게 거두어 각사가 공물을 구입하고, 남은 것은 군량으로 쓰는 것을 제안하였다.²⁹⁾ 유성룡의 개혁안을 발의했던 1594년은 전시상황인데다 송유진(宋儒眞)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기근이 발생했던 때였다.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개혁안은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가 1600년에 폐지되었다.³⁰⁾ 이처럼 공납제 개혁안이 시행·유지되지 못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방납이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려 관련인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었다.

2) 광해군 즉위 초의 정국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부각되자 선조는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선조는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기면서 약 두 달간 교서와 인장을 주지 않았다.³¹⁾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21차례나 양위 소동을 벌였음에도³²⁾ 정작 명황제에게 세자책봉을 주청하는 일에는 미온적이었다.³³⁾ 1604년 6월에는 대대적으로 공신을 책봉하면서 분조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제외하

28) 이이는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이러한 공납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연구』 III, 일조각, 1997, 11~12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29)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7일 기사.

30)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1984, 191~216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1)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32) 계승범, 「세자 광해군-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2013, 222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3)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였다.³⁴⁾ 이에 따라 광해군은 분조의 대부분의 사안을 대조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 일을 처리하거나³⁵⁾ 양위 소동을 일으킬 때마다 취소를 간청하는 등 신중하게 처신하였다.

한편 광해군은 세자로 있었던 17년 동안 다섯 번의 세자책봉 주청에서 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이는 광해군의 세자책봉 사안이 명신종(神宗)의 황태자 책봉 문제와 결부되었던 데다가 임진왜란 때의 도움을 빌미로 명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⁶⁾ 그러면서도 명은 1595년 3월에는 칙서를 내려 광해군에게 부왕의 실패를 언급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무를 주관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³⁷⁾

즉 광해군은 애초에 혈통상의 정통성이 취약했던 상황에서 전쟁으로 갑자기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이후 명황제의 책봉도 받지 못했고 선조의 견제까지 받았다. 게다가 1606년에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태어나 광해군의 혈통상의 정통성은 더욱 약화되었다. 따라서 광해군에게는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15세기에는 척신(戚臣)세력이 배타적 권력을 유지하며 정치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폐해가 생기자 15세기 말부터 향촌에 기반을 둔 중소 지주인 사림(士林)세력이 성장하여 이들과 대립하였다. 이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사망으로 척신세력이 약화되자 사림세력은 정치적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선조 때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사림세력은³⁸⁾ 1575년 인사권의 장악을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朋黨)을 형성하였다. 1589년에 일어난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일어나자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다.³⁹⁾

34)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향전」, 『군사』, 2011, 136쪽.

35) 계승범, 「세자 광해군-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2013, 220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6)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7, 73~74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7)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7일 경자.

38) 구덕희, 「선조대 후반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1988, 220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 13~24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임진왜란 이후의 조정에서는 남인·서인이 정치 운영의 책임으로 약화되고 의병장을 다수 배출한 북인이 대두하였다.⁴⁰⁾ 북인의 사상적 연원에는 조식(曹植)과 서경덕(徐敬德)이 있었다. 조식은 자기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고 서경덕은 성리학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도가에 관심을 보인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북인은 다른 당파에 비해 학문적 정통성과 연결성이 약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북인에는 최영경(崔永慶)·정인홍(鄭仁弘)·곽재우(郭再祐)·이산해(李山海)·유희분(柳希奮)·유영경(柳永慶) 등이 있었다.⁴¹⁾ 선조 말기에는 유영경이 선조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의 일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⁴²⁾

북인은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왕위계승 문제로 분열하였다. 소북은 유영경과 그 일파를 중심으로 영창대군을 지지하였다. 반면 대북은 임진왜란 때의 공적과 경험으로 연합한 유희분·이이첨(李爾瞻)·정인홍을 중심으로 광해군을 지지하였다. 후계 문제로 긴장이 계속되던 가운데 1608년 1월 18일 정인홍은 상소를 올려 진위(傳位)를 거론하며 그것을 방해한 유영경을 탄핵하였다. 이로 인해 정인홍은 26일에 이이첨·이경전과 함께 유배에 처해졌다.⁴³⁾ 그러나 며칠 뒤 선조가 사망하여 정세가 급변하였다. 광해군은 선조의 선위교서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즉위하였다. 이에 따라 유영경 일파는 조정에서 축출되고 대북은 광해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세력이 되었다.

이후 대북세력은 주로 삼사(三司)와 이조(吏曹)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광해군 초기의 정국(政局)을 주도해나갔다. 대북세력의 중심인물은 정인홍과 이이첨이었다. 정인홍은 강력한 재지 기반, 조식의 수제자인 점, 의병장으로서의 공적, 광해군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림(山林)으로서 조정의 중대사에 관여

40) 남인의 영수인 유성룡은 북인에게 ‘주화오국(主和誤國)’의 논리로 공격당하여 실각하였다. (신병주, 「북인 학파의 연원과 사상, 그리고 현실인식」, 『한국철학논집』 32, 2011, 45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41) 신병주, 위 논문, 48~56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42) 유영경의 손자인 유정량과 선조의 딸인 정휘옹주와 혼인하여 유영경은 선조의 인척이 되었다. (신명호, 「선조말·광해군초의 정국과 외척」, 『청계사학』 10, 1993, 18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43) 『선조실록』 221권, 선조 41년 1월 18일 병오, 1월 26일 갑인.

하였다.⁴⁴⁾ 이이첨은 척신이었던 이극돈(李克墩)의 후손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에 참여한 것, 세조의 어진보존에 공을 세운 것으로 조정에서 부상하였다.⁴⁵⁾ 이이첨은 정인홍과 함께 선조의 전위를 언급하고 유영경을 탄핵한 일로 광해군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이이첨은 대부분의 시간을 합천에 머물렀던 정인홍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권력을 증대시켜 나갔다.

광해군 시기의 정치를 주도한 또 하나의 정치세력은 대북세력과는 다른 남인·서인 등의 당색을 가졌지만 당색이 강하지 않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료들이었다. 광해군은 1608년 2월 2일 보위에 오른 후 2월 25일 비망기를 내려 당파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⁴⁶⁾ 그리고 임진왜란 때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활약하여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이원익(李元翼)·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에게 의정직을 맡겼다. 이들은 돌아가며 의정직을 맡으며 광해군 초기 정국을 총괄하였다.⁴⁷⁾ 이로써 광해군 즉위 초의 정국은 광해군의 즉위에 공을 세운 대북세력과 실무를 담당하는 초당파(超黨派)적인 다른 정치세력의 연립정국이 되었다. 이는 광해군이 전후 복구를 추구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는 일을 우선시한 결과였다.

북인 세력은 광해군의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해군과 자신들의 정권 창출에 장애물이었던 유영경 일파와 임해군 제거를 도모하였다. 유영경 일파의 축출은 다른 정치세력들도 수용하였다. 그러나 임해군의 처단에 관해서는 이원익·이항복을 비롯한 많은 관료들이 반대하였다. 이후 옥사와 관련하여 유배에 처해졌던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살해되었다. 따라서 두 정치세력의 불안한 연립정국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44)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1988, 275-276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45) 이희환, 「광해군대의 정국과 이이첨」, 『전북사학』 38, 2911, 55쪽.

46) 『광해군일기』 1권, 광해 즉위년 2월 25일 임오.

47)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1988, 284~285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 대동법의 시행과정

1608년 3월 2일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비망기로 포괄적 정책 지침을 내렸다.

“목전의 긴박한 일을 가지고 말하여 본다면 백성들의 일이 매우 안쓰럽고 측은하기 그지없다. 산릉(山陵)의 역사(役事)와 조사(詔使)의 사행 때 드는 비용을 털끝만한 것도 모두 백성들에게서 엄출하고 있으니, 불쌍한 우리 적자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만일 위로하고 구휼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는다면 방본(邦本)이 먼저 동요되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니, 경들은 백방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일 푼의 은혜라도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

예컨대 해묵은 포함(逋欠), 급하지 않은 공부, 군졸들의 도고(逃故), 세도를 부리는 호강(豪強)들의 침릉(侵凌)은 물론 이밖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모든 폐단은 일체 견감하고 개혁시켜 혹시라도 폐단이 되는 일이 없게 하라. 공상(供上)하는 방물(方物)과 내수(內需)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감하겠다. 그리고 중외로 하여금 소회를 다 진달하게 하여 가언(嘉言)이 숨겨지는 일이 없게 하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이르라.”⁴⁸⁾

이는 광해군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는 것에 있음을 관료들에게 알리고 그 해결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후 이원익이 공납제의 개혁을 제안하였다. 이원익은 선조 때 안주목사(安州牧使)와 도체찰사 등을 역임하는 등 조정에서 정치적·행정적 능력을 인정받은 명망 있는 관료였다.⁴⁹⁾ 광해군이 즉위했던 즈음에는 임진왜란으로 토지가 황폐화되어 전세가 급감한 데다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공안 일부를 분실한 상태였다. 게다가 방납의 폐단 또한 극심했다.⁵⁰⁾ 이원익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납제

48) 『광해군일기』 1권, 광해 즉위년 3월 2일 기축.

49) 이정철, 「오리 이원익과 두 번의 공물변통」,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172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50) 이때 공납을 위해서는 평 한 마리에 쌀 8말, 생선 한 마리에 10말로 10배, 100배의 방납가를 부담해야 했다.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III, 일조각, 1997, 6~9쪽을 참조.)

개혁을 제안했던 것이다.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였다. 전에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년 8말씩 거두어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피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거두는 16말 가운데 매년 1말씩을 감하여 해당 고을에 주어 수령의 공사비용으로 삼게 하고, 또한 일로(一路) 결의 고을은 사객이 많으니 덧붙인 수를 감하고 주어 1년에 두 번 쌀을 거두는 외에는 백성들에게서 한 되라도 더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오직 산릉과 조사의 일에는 이러한 제한에 구애되지 말고 한결같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그런데 전교 가운데에 '선혜'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의 명칭을 삼은 것이다. 의정을 도제조로 삼고, 호조 판서가 부제조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낭청 2원을 두었다. 이 뒤로 수령이 못된 자일 경우 정해진 법 밖에 더 거두어도 금할 수 없었고, 혹은 연호(烟戶)를 침탈해서 법으로 정한 뜻을 다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전의 전결에 대한 역은 이에 힘입어 조금 나아졌다.⁵¹⁾

이원익은 이전의 관련 개혁안들을 참조·보완하여 대동법을 제시하였다.⁵²⁾ 즉 사대동을 정책으로 수용하되 지방 재정의 몫을 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방납인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방납인을 대동법의 틀 안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처리하기 곤란한 산릉과 조사의 역은 별도로 규정하였다. 광해군은 이원익의 건의를 수용하여 즉위년인 1608년 9월

51) 『광해군일기』 4권, 광해 즉위년 5월 7일 임진.

52) 이원익이 1574년 황해도 도사(都事)에 임명되었을 때 이이가 황해도 관찰사였다. 이때 이이가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 정무를 맡겼다고 한다. 유성룡은 이원익이 출사한 직후부터 그를 인정하였고 그와 정치적인 입장이 같았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원익이 이들 두 사람의 공납제 개혁안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병주, 「선조에서 인조대의 정국과 이원익의 정치활동」, 『조선시대사학회』 67, 2013, 238~240 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대동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은 공납할 때 전결수에 따라 1결당 균일하게 쌀 16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공납 부담은 줄어든 대신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동법은 백성들과 법 추진세력을 제외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시행되었다. 계속되는 반발로 광해군은 대동법을 여러 차례 폐지하려고도 하였으며, 대동법이 곧 철폐된다는 소문이 퍼져 백성들이 동요하는 일도 있었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연간에 대동법이 유지되었던 것은 이원익 등의 초당파적 관료들이 대동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⁵⁴⁾ 그들의 주장을 광해군이 수긍하여 대동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대동법이 시행·유지되었던 것이다.

4) 대동법 시행의 결과와 의의

광해군 시기에 대동법은 경기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경기 지역의 양반 지주들이 중앙관료이거나 혹은 중앙관료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들은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 특히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 경기 지역 백성들의 공납부담이 더 무거워 유망하는 백성들이 증가하던 당시 상황을 이들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⁵⁵⁾

53) 『광해군일기』 14권, 1년 3월 5일 병술. 선혜청이 이미 혁파했다는 소문이 돌아 경기 백성들이 통문하여 궁으로 가 호소하려 하고 별읍의 양반과 백성들도 상소를 올려 하소연하는 등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대동법 시행 반대 논의에 동요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54) 『광해군일기』 26권, 광해 2년 11월 18일 기미. 광해군이 대동법의 지속적인 시행에 대하여 이덕형에게 반문하자, 이덕형은 백성들의 고통을 이유로 대동법을 옹호하였다.

55) 김윤곤,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싼 찬반양론과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8, 1971, 155~156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당시에 대동법의 시행을 추진한 것은 이원익 등의 초당파적인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복인세력을 포함한⁵⁶⁾ 대부분의 관료들과 양반 지주들은 대동법 시행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동법의 지속 및 확대 여부에 대하여 광해군 재위 기간 내내 조정에서 논의가 계속되었다. 한정적이거나 대동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광해군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는 일이 중요하고,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이었다.

광해군 초기에는 대동법을 ‘선혜지법(宣惠之法)’이라고 불렀다. 이는 광해군이 즉위 직후에 “널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지시한 데서 유래하였다. ‘대동’은 신분차별과 세금, 부역이 없는 상상 속 유토피아의 세계를 일컫는데 선혜지법에 ‘대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서 이 법이 얼마나 획기적인 내용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⁵⁷⁾ 사대동은 임진왜란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지방관의 자율적인 수취로 군현마다 전결수 1결당 수취액이 달랐다. 대동법의 시행은 이를 개선하여 경기도 내 군현들은 모두 1결당 같은 액수의 쌀과 포를 거두도록 했다는 점, 그동안 사실상 공납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반 지주들이 공납을 부담하게 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양전사업과 조운제도 정비, 광범위한 반대 해결 등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로 인해 대동법은 처음 대동법이 처음 실시된 지 100여년 만인 숙종 때에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⁵⁸⁾

56) 복인세력의 일원이었던 기자헌이 당시에 방납인과 결탁해 방납을 일삼는다고 비판받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복인세력 또한 방납을 하고 있었다. (지두환, 「선조·광해군대 대동법 논의」, 『한국사논총』 19, 1997, 61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57)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16년, 111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58) 대동법 하에서는 전결수에 따라 징세 수입이 결정되었으므로 양전사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쌀과 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조운제도 정비도 필요하였다.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한국사학보』 46, 2012, 74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 대북세력의 독주와 정치 운영의 파국

16세기부터 사림세력 안에서 각 학파의 학문적 연원을 계보화와 선배 사림에 대한 추모가 시작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현(五賢), 즉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에 대한 문묘종사(文廟從祀) 요청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1610년에 문묘종사가 허락되었다.⁵⁹⁾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정인홍이 1611년 3월 회퇴변척(晦退辨斥)을 주장하였다. 회퇴변척은 회재(晦齋) 이언적과 퇴계(退溪) 이황이 문묘에 종사된 것을 배척하는 것이었다. 정인홍은 스승인 조식의 사상을 비판했던 이황을 배척하고 조식을 문묘에 종사하여 대북세력의 정권주도의 명분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현은 당시 사림세력이 공통적으로 추앙하는 대상이었으므로 회퇴변척은 사림세력 전체의 비난을 받았다. 정인홍은 이 일로 조정 관료들과 대립하였고 『청금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⁶⁰⁾

회퇴변척에 실패한 후 대북세력은 옥사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정치권력을 추구하였다. 1612년에 일어난 ‘김직재(金直哉)의 옥사’는 역적 토벌의 담당자를 자처하는 이이첨 등의 대북세력에 의해 조작·확대되어 소북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옥사에 연루되었다.⁶¹⁾ 1613년 4월에는 명문가의 서얼들이 은상을 살해한 ‘칠서(七庶)의 옥사’사건이 대북세력에 의해 조작되어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김제남(金悌男)의 역모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여러 남인·서인들이 연루되었으며 김제남이 사사되었다. 영창대군 또한 살해되었고 인목대비까지 유폐되었다.

계축옥사는 영창대군 처형과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까지 불러일으켰다. 폐모론을 둘러싸고 이이첨 중심의 대북세력과 그 외 다른 정치세력은

59)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1988, 300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0) 한명기, 위 논문, 307쪽~310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1)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2003, 12쪽.

대립하게 되었다. 폐모론이 장기화되면서 폐모론에 반발한 이항복·이덕형·이원익·기자헌(奇自獻) 등의 관료들이 파직·유배 등으로 조정에서 배제되었다. 1618년 1월 우의정 한효순(韓孝純)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비의 죄를 들어 정청(庭聽)을 하였다. 이후 광해군은 대비의 존호(尊號)를 깎고 공헌(貢獻)을 폐지하며, 분조를 철폐하고 조알(朝謁)을 정지시켜 무사들이 지키도록 하였다.⁶²⁾ 이후에도 폐모론은 계속되었으나 명과 후금 사이에서의 외교문제와 궁궐공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17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는 누르하치의 건주여진(建州女眞)이 성장하고 명이 쇠퇴하고 있었다. 조선은 1621년 3월 후금이 요동을 장악하면서 명과 후금과의 외교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때 광해군은 명의 재출병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후금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후금과 대화를 시도하였다.⁶³⁾ 그러나 당시 조정 관료 대부분은 후금과 대화조차 거부하며 광해군의 외교에 반발하였다. 양자 간의 대립은 서로의 입장·가치관의 차이에서 야기되었다. 당시 사림세력에게 명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었다.⁶⁴⁾ 이에 비해 광해군은 초월적인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그러한 명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따라서 외교문제에서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의 이러한 외교정책을 뒷받침해줄 지지세력은 극소수였다. 연이은 옥사로 대북세력을 제외한 다른 정치세력들은 거의 조정에서 배제되었고 대북세력까지 광해군의 대후금 외교정책에 반대하였다.⁶⁵⁾ 1622년 명의 원군 요청을 광해군이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광해군과 관료들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⁶⁶⁾ 이후 광해군은 조정의 행정 마비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갔다.

62) 『광해군일기』 123권, 광해 10년 1월 4일 갑자.

63) 『광해군일기』 166권, 광해 13년 6월 6일 병자.

64) 계승범, 「광해군의 대외정책과 그 논쟁의 성격」, 『한국불교사연구』 4, 2014, 30-31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5) 『광해군일기』 128권, 광해 10년 5월 5일 임진. 이이첨은 광해군이 외교 문서를 명에 보내 요행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광해군은 인경궁(仁慶宮)·경덕궁(敬德宮)을 새로 짓는 등 무리하게 궁궐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공사를 담당했던 영건도감(營建都監)이 각지에 조도사(調度使)를 파견하여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그 폐단이 극심하였다. 궁궐공사는 점차 권세가들의 이익 추구의 장이 되었고 따라서 공사 진행은 지지부진 하였다. 그로 인해 몇 년간 공사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던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다.⁶⁷⁾ 그럼에도 광해군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궁궐공사를 계속 강행하였다.⁶⁸⁾

재위기간 동안 지지세력과 민심 모두를 잃은 광해군은 인조와 서인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반정세력이 주장한 반정의 중요명분은 광해군이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 폐모를 시도하였다는 것,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 궁궐공사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반정의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첫 번째는 대북세력이 그 외 다른 정치세력과의 공존보다는 정치권력의 독점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인홍과 곽재우는 붕당을 전쟁의 원인으로 파악하며 비판하였다. 정인홍은 더 나아가 상소에서 대북세력만이 ‘군자당(君子黨)’이라며 왕에게 ‘군자당’에 대한 변별을 강조하였다.⁶⁹⁾ 심지어 대북세력은 광해군이 즉위 초기에 자파 외의 인물들을 중용한 것을 비난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사림세력과 광해군의 입장 차이에 따른 대립에 있었다.

66)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역사학보』 193, 2007, 25쪽.

67) 김성우, 「광해군 치세 3기 국가재정 수요의 급증과 농민경제의 붕괴」, 『대구사학』 118, 2015, 85~89쪽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8) 광해군은 궁궐공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간에서 1결당 1필을 따로 거두었고 공명첩(空名帖)까지 발급하였다. 게다가 1619년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치기 위한 원군을 파병하기 위한 증세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궁궐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장지연, 「광해군대 궁궐영건」, 『한국학보』 86, 1997, 139-140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9) 『광해군일기』 21권, 광해 1년 10월 26일 갑술.

명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는 사림세력과 달리 광해군은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명과 후금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외교정책을 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이 자신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치 세력이 단결하여 그를 뒷받침해줘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 운영은 이미 대북세력이 독점하였던 데다가 광해군 또한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광해군 시기의 정치가 파국을 맞이했던 것이다.

Ⅲ.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기술 비교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맞아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며 항전활동을 펼쳤다. 즉위 이후에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 초당파적인 관료들과 대동법 시행이라는 개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후 대북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추구하면서 대북 외의 다른 정치세력들이 정치운영에서 배제되었다. 광해군은 무리하게 궁궐공사를 일으켜 강행함으로써 민심까지 잃었다. 결정적으로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후금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시도한 것에 사림세력 전체가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서인과 인조가 명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와 인목대비 유폐·영창대군 살해를 명분으로 앞세워 반정을 일으켰다.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이 과정들이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가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서 광해군 시기의 정치는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영역에서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대내외적 영향’과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이라는 두 개의 내용 요소에 나누어져 기술되어 있다.⁷⁰⁾ 그리고 이 두 개의 내용 요소에서 ‘광해군 시기의 정치’, ‘대동법의 시행’, ‘인조반정’이라는 각각의 세 부분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부분에서 광해군 대의 정치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 나열의 순서는 기술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서술하겠다.

먼저 세 부분의 기술 분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해군 시기의

70)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98쪽.

정치’ 부분은 비상이 1쪽 15줄, 천재가 1쪽, 리베르가 23줄에 걸쳐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 외 교과서들은 두산 12줄, 금성 11줄, 미래엔 9줄, 지학사 8줄로 대동소이하하였다. ‘대동법의 시행’ 부분은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분량이 많았다. 미래엔이 1쪽 4줄로 가장 많이 기술하였고, 교학사·금성·두산·천재가 모두 1쪽을 기술하였다. 리베르는 16줄, 지학사는 12줄, 비상은 9줄을 각각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조반정’ 부분은 세 부분 중 가장 기술 분량이 적었다. 금성이 6줄을 기술하였고 그 외 7종 교과서는 모두 4줄씩 기술하였다.

기술 분량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광해군 시기의 정치 운영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어야 한다.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기술 분량은 외교 부분을 조정하여 줄이고 정치 동향에 대한 기술을 좀 더 확충해야 한다. 광해군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중심으로 그 전반적인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야만 이 시기 정치세력의 동향, 대동법의 시행 배경과 진행 과정, 외교 등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조반정’ 부분은 ‘성리학의 발달’ 부분에 동서 분열의 학문적 성격, 탕평정치·세도정치에 기술이 치우쳐 있었다. 동서 분열 이후부터 인조반정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기술 분량이 적었다. 인조반정 이후의 정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관련 기술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

1. 임진왜란 후 광해군 시기의 정치

다음의 <표 1>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서 광해군 시기의 정치와 관련된 기술을 인용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광해군 시기의 정치 기술 내용

교과서	소주제 제목	기술 내용
비상 교육	왜란 후 복구 정책의 추진	<p>·왜란 때 북인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광해군은 분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선조 이후 광해군은 북인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올랐고, 전쟁 복구에 힘을 쏟았다.</p> <p>·광해군은 먼저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하였으며, 공납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은 (중략)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파괴된 성곽을 수리하고 (중략) 백성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148쪽)</p>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인조반정	<p>·일부 사람들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 명에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게다가 서인이 영창대군을 지지하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폐위하였다. 이를 두고 서인은 유교 윤리에 어긋난다며 광해군을 비판하였고, 결국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왕위에 앉혔다. (인조반정, 1623) (149쪽)</p>
천재 교육	전후 재건과 중립 외교	<p>·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농경지를 개간하였으며.(중략) “동의보감”을 편찬하도록 하는 한편 (중략) 국방력 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p> <p>·이러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양반 사대부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광해군이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위하자, 인륜에 어긋나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구실로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서인이 중심이 되어 정변을 일으켰다. 이로써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다. (인조반정, 1623) (133쪽)</p>
두산 동아	병자호란이 일어나다	<p>·광해군은 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북인의 지지를 얻어 즉위하여 전쟁의 뒷수습에 노력하였다. 농지를 복구하고, 양안과 호적을 새로 작성하여 국가 수입을 늘리는 한편, 국방에도 힘을 기울였다.</p>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인은 광해군과 북인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한 것을 구실로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124쪽)
지학사	후금이 쳐들어오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리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서인 세력은 ‘폐모살제’의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다. (인조반정, 1623) (157쪽)
교학사	광해군의 정책	·광해군은 즉위 이후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하였다.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안과 호적을 정리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고 (중략)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고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광해군에 불만이 많았던 서인은 광해군이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과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광해군을 축출하는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121쪽)
금성출판사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해군은 대내적으로 임진왜란 중에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문물을 재정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을 폈다.
	병자호란의 발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반발하고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171쪽)
미래엔	광해군, 중립외교를 펴다	·광해군은 왜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사정과 후금이 새롭게 성장하는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하여 (중략) 국방 강화에 힘썼다. 또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호란이 발발하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명에 대한 의리를 주장하는 서인 등 일부 사람의 반발을 샀다. 결국 서인은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는 등 유교 윤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하였다. (인조반정, 1623) (118쪽)
리베르스쿨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안정을 도모하다	·왜란이 끝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북인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전쟁을 뒷수습하고,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우선,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 (중략) 또 현물로 내던 공납을 쌀로 내게 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그리고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하도록 하였으며, 불타버린 사고를 다시 건립하였다.
	청이 두 차례 조선을 침공하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한 서인은 광해군이 명을 배신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를 들어 인조반정(1623)을 일으키고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냈다. (153쪽)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과서 기술은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 난의 대내외적 영향’이라는 내용 요소에 포함된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시기이므로 임진왜란의 전후복구와 호란의 발발과 관련된 소주제 부분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 기술의 주된 내용은 전후복구와 외교정책, 인조반정이었다. 그런데 지학사는 전후복구책에 대하여 기술하지 않고 광해군의 외교관련 내용만 기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금성·리베르·미래엔·비상은 광해군 대의 정치와 관련해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즉 전후복구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기술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호란으로 내용이 연결되도록 기술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외교 외에 8종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은 없었다. 광해군의 즉위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 교과서는 두산·리베르·미래엔·비상뿐이었는데 이 4종 교과서도 과정에 대한 기술에 각각 차이가 있었다. 비상은 광해군의 분조활동과 북인의 의병활동, 그리고 북인의 지지를 얻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모두 기술하였다. 반면 미래엔은 피폐한 전후 국내 상황과 후금이 성장하는 국외상황 속에서 광해군이 즉위하였다고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두산과 리베르는 광해군이 북인을 지지기반으로 하였다고 간략하게 기술하였는데 그 중 리베르는 광해군이 북인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전쟁을 뒤흔들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전후

복구책을 복인이 시행했다고 오해할 여지를 주게 되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인조반정의 주요 명분인 인목대비 유폐와 영창대군 살해에 관하여 금성은 아예 그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고 리베르는 인목대비 유폐를, 미래엔은 영창대군 살해를 기술하지 않았다. 그 중 인목대비 유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6종 교과서가 ‘폐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1613년 4월에 일어난 ‘칠서(七庶)의 옥사’로 인목대비 폐모론이 불거진 이후 대북세력이 폐모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618년 1월에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으나⁷¹⁾ 광해군 연간에 실제로 폐위되지는 않았다.

인조반정 때 반정의 주도세력이 인목대비의 이름으로 반포한 교서에는 명에 대한 배신, 폐모론과 살제(殺弟), 권력 전횡, 궁궐공사가 명분으로 강조되어 있다.⁷²⁾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실록을 포함한 대부분의 역사서에 광해군의 외교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인조가 병자호란으로 후금에 굴복하여 화친을 맺음으로써 광해군보다 더욱 심각하게 명을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자호란 이후로는 반정의 명분으로 폐모논의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면서 ‘폐모’의 용어가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폐모론’이 ‘폐모’로 왜곡되어 교과서에 기술되어 이제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므로 6종 교과서에 기술된 ‘폐모’라는 용어는 ‘유폐’로 정정되어야 한다.

또한 광해군이 전후복구책의 일환으로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것을 교학사·리베르·미래엔·비상만이 기술하였다. 대동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던 광해군의 의지와 당시 초당파적인 관료들의 건의와 지지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관련 기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광해군 시기의 정치’와 관련해서는 두 교과서만이 자료를 삽입하였다. 비상은 날개 부분에

71) 『광해군일기』 123권, 광해 10년 1월 28일 무자. “지금 이후로는 단지 서궁이라고만 칭하고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는 폐(廢)라는 글자를 거론하지 말아 사은(私恩)과 의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 공봉(供奉)을 감손(減損)하는 절목(節目)에 대해서는 일일이 자세하게 의논하여 거행토록 하라.”

72) 계승범, 「계해정변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6, 2008, 450쪽.

분조 활동에 대해 기술하였고 허준의 『동의보감』 서문을 실어서 광해군 시기에 전후복구책을 펼친 이유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하였다. 천재는 ‘생각 넓히기’를 삽입하여 8종의 교과서 중 유일하게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을 기술하였다. 특히 천재는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8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궁궐 공사의 폐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대동법의 시행

다음의 <표 2>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서 대동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대동법 시행 기술 내용

교과서	소주제 제목	기술 내용	자료사용
미래엔	대동법, 공납을 전세화하다	·공납의 개혁은 오랜 논의 끝에 시행된 대동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31쪽)	·지도;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 ·표; 대동법의 실시구조 ·사진; 대동법 시행 기념비
교학사	대동법의 실시	·광해군 대에 이르러 조정은 공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동법을 마련하였다. (131쪽)	·지도; 대동법의 시기별 확대 ·더 알아보기; 이원익의 대동법 건의와 조익의 지역별 대동법 찬반의견 정리
금성 출판사	대동법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지도;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 ·『광해군일기』; 대동법의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원년(1608)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80쪽)	실시배경
두산동아	수취체제를 정비하다	·정부는 왜란 이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127쪽)	지도; 대동세의 징수
비상교육	수취체제의 개편	·대동법은 광해군 시기에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1608) (156쪽)	·지도; 대동법의 시기별 확대
리베르스쿨	대동법으로 공납을 전세화하다	·광해군 때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동법이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숙종 때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164쪽)	·지도;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 ·『광해군일기』; 대동법 시행 건의
지학사	대동법을 실시하다	·공납은 초기부터 방납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폐단이 많아져 (중략) 임진왜란 후에는 현물 징수 자체가 어려워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166쪽)	·지도; 대동법의 시기별 확대
천재교육	대동법의 시행	·공납 제도의 개혁 방안인 대동법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농민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43쪽)	·지도; 대동법의 시기별 확대 ·활동하기; 『선조실록』과 『포저집』

대동법의 시행에 대한 교과서 기술은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이라는 내용 요소에 포함되며 ‘수취 체제의 정비 및 개편’ 부분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앞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학사·리베르·미래엔·비상에서는 정치를 다루면서 광해군이 진후복구책의 일환으로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교학사·금성·리베르·미래엔·비상·지학사는 방납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해군 때 국가재정의 확충과 백성들의 공납부담의 경감을 위해 대동법이 처음 시행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두산과 천재는 대동법이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다는 기술이 빠져있었다. 두산은 방납의 폐단에 대한 기술까지 빠져있었다. 광해군과 초당파적인 관료들은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학생들이 대동법의 개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

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8종 교과서 모두가 효율적으로 자료를 삽입하였다. 모든 교과서가 지도 자료를 실었는데 교학사·비상·지학사·천재는 대동법이 시기별로 확산되어 가는 현황지도, 금성·두산·리베르·미래엔은 대동법이 어떤 품목으로 징수되고 어떤 경로로 운송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를 실었다. 또한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서는 실록을 인용하였다. 금성과 리베르는 『광해군일기』에서 대동법 시행 건의 부분을, 리베르와 지학사는 『효종실록』에서 김육(金堉)의 대동법 확대실시 건의 부분을 실었다. 비상과 천재는 『선조실록』과 『포저집(浦渚集)』에서 각각 방납의 폐단과 대동법 시행을 다룬 부분을, 미래엔은 『인조실록』과 『포저집』에서 대동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실었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는 ‘더 알아보기’에서 대동법의 시행 논의와 시행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원익과 조익(趙翼)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용한 사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3. 인조반정

다음의 <표 3>은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서 광해군 시기의 정치세력과 관련된 기술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인조반정 기술내용

교과서	소주제 제목	기술 내용
금성출판사	조선 성리학의 발달	·동인은 (중략) 남인과 서경덕 학파와 조식 학파의 북인으로 분화되었다. 북인은 광해군 대에 정치를 주도하였으나 17세기 초 인조반정 이후 몰락하면서 남인에 흡수되었다. (161쪽)
	붕당 정치	·임진왜란이 끝난 뒤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정국을 독점하다가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 (176쪽)
천재교육	붕당 정치의 전개	·이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던 사림은 (중략)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이어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권력을 잡았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중략) 정국을 운영하였다. (136쪽)
두산동아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다 (중략) 의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인조반정으로 북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 (중략)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128쪽)
리베르스쿨	붕당 정치가 전개되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북인은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과 북인은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157쪽)
미래엔	붕당 정치의 전개	·광해군 때 집권한 북인은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중략) 정치적 무리수를 두었다. 이에 서인을 중심으로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123쪽)
비상	붕당 정치의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여 광해

교육	전개	군과 함께 전후 복구 사업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복인이 몰락하자 봉당 정치는 서인이 주도하고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서인과 남인은 양난 이후 흐트러진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였다. (157쪽)
지학사	봉당정치가 예송으로 이어지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한 정파가 정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던 광해군 시기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남인을 정권에 참여시켰다. 서인과 남인은 정치사상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협력하였다. (162쪽)
교학사	광해군의 정책	·따라서 정통성이 약하였던 광해군은 항상 자신의 위치가 불안함을 느껴야 했고, 이는 광해군 때 정권을 담당하였던 복인 세력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광해군과 복인들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인목대비를 폐비시키고 (중략) 이는 인조반정이 발생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121쪽)
	봉당 정치의 변질과 탕평 정치의 운영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비변사를 장악하였고,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 (126쪽)

‘인조반정’ 부분은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이라는 내용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기술은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 성리학의 발달 부분’에서 봉당의 시작과 동서 분열을 다루고 ‘광해군 시기의 정치’ 부분에서 복인과 서인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그 다음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부분에서 정치세력의 변동·탕평정치·세도정치로 이어지는 정치세력의 변동과 정 곳곳에 관련 내용을 분산적으로 기술하였다. 리베르·비상·천재는 앞서 설명한 기본 구조대로 기술하였는데 다른 5종 교과서는 기술상 문제가 있다. 두산과 미래엔은 기본 기술구조는 앞선 3종 교과서와 유사하나, ‘조선 전기 성리학의 발달’ 부분에서 동인의 분열을 다룬 다음, ‘광해군 시기의 정치’ 부분에서 갑자기 별다른 설명 없이 복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후 ‘봉당 정

치의 전개' 부분에서야 동인의 분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금성은 다른 7종 교과서와는 달리 '조선 전기 성리학의 발달' 부분에 동인의 분열과 인조반정까지 기술하였다. 지학사는 동인의 분열에 대하여 기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 정파의 독점적인 정국 운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교학사는 동인의 분열에 대한 설명 없이 '광해군 시기의 정치' 부분에서 북인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붕당 정치의 변질' 부분에서도 대북세력의 몰락에 대한 설명 없이 예송논쟁(禮訟論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비상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이 있었다. 전후복구 사업과 제도 개편은 북인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초당파적인 관료들과 광해군이 추진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상과 지학사는 양난 이후 서인과 남인이 협력하여 전후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좀 더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서인과 남인이 전후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것은 당파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초당파적인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분에는 자료 이용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붕당 계보도 자료를 실은 교과서는 리베르·미래엔·천재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 리베르 139쪽에 실린 '성리학 계보도'는 당파의 분열과 관련하여 각 당파의 대표인물의 그림만 나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자료의 이용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상상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사람의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에 이미지를 제시해 언어적 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⁷³⁾ 조선시대 정치세력의 변동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정치지형도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표·계보도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관련내용을 구조적·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3) 최완기, 『역사교육과 학습내용의 선정』, 느티나무, 2003, 84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IV.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육방법

1.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육방법 모색

지금까지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대동법의 시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의 기술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 대동법의 시행을 정치와 연관지어 기술하지 않고 있었으며 광해군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분절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었다.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 역사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다음, 정치·재정·외교·사회 등 각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서 기술이 이러한 수업 방향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학생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역사수업의 교육방법에는 설명식 수업, 문답식 수업, 극화 수업, 이야기 수업, 토론식 수업,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설명식 수업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와 판서로 학습지도를 전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지도 시간이 절약되고 학생들의 체계적 이해에 효율적이다. 특히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적 정보나 개념들을 정리할 때 유용한 교육방법이다. 그러나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교사가 교과내용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에 수동적으로 임하게 되어 지루해지기 쉽다.⁷⁴⁾ 게다가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인 광해군 시기의 정치는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명식 수업은 본 연구의 학습지도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두 번째로 문답식 수업이 있다. 문답식 수업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질문

74)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168~169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전개되는 교육방법이다. 문답식 수업은 설명식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문답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지도를 위한 교사와 학생 모두 사전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어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사전에 어느 정도 학생과 교사 모두 훈련되지 않으면 단순한 역사 사실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평이한 질문과 대답만이 오가게 되어 수업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는 극화 수업이 있다. 극화 수업은 줄거리를 가진 극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지도방법으로 연극식·시사토론식·모의재판식·모의국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극화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역사 속 인물들의 의도와 행위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극화 수업은 학생들이 시간과 경험을 초월해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⁷⁵⁾ 또한 극의 상황 설정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인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맞추어 구성되어야만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육방법이다.

네 번째로 이야기 수업이 있다. 이야기 수업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시대에 대하여 이야기로 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 이야기 수업은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여 주체적이고 의욕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생들이 지니는 편파적인 인물관을 바로잡고 인격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효율적인 교육방법이기도 하다.⁷⁶⁾ 그러나 교사의 해석과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

75) 최완기,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1997, 259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76) 최완기,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1997, 123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성이 높으며 고등학생보다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이다.

다섯 번째로는 토론식 수업이 있다. 토론식 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한 논쟁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토론식 수업은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 혹은 경쟁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합리적 사고능력·추리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토론 중 타인의 견해를 들으면서 특정한 역사 주제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식 수업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비효율적인 교육방법이다. 또한 학급당 인원이 많아 수업 진행에 교사에게 인내심과 참을성이 요구되는 방법이기도 하다.⁷⁷⁾

마지막으로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이 있다.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은 중요한 시대나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당시의 신문을 만들어보는 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과거의 시대·사건·인물에 몰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주체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들의 역사를 해석하는 능력과 표현력을 신장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신문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찾고 선별하여 쓰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상당한 준비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⁷⁸⁾

본 연구에서 수업 지도안으로 제시할 주제는 “광해군 시기의 대동법을 중심으로 한 정치”이다.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대동법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 시행되었는지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주제에 적합한 교육방법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전제로 하는 극화 수업,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 토론식 수업을 들 수 있다. 극화 수업은 학생모두에

77)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175~177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78) 정선영 외, 위의 책, 186~187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게 역할을 부여하여 진행하는 연극이나 재판 수업에는 적합하지만 입장별 이해관계를 다루는 본 주제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은 자료의 이용과 판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치열한 찬반논의를 통해 대동법이 시행되는 과정을 시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의 주제에 토론식 수업을 대입하여 보면, 대동법과 시행과 관련된 인물들인 왕과 초당파적 관료, 양반 지주와 백성, 대북세력으로 각 입장을 정한 다음 학생들이 5개의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각자 다른 입장을 모둠별로 피력하며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비난하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므로, 본 주제에는 토론식 수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동법의 시행에 대한 토론식 수업 지도안

1) 본시 학습목표

- (1)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광해군 때의 정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2) 대동법의 시행에 관한 모둠별 토론을 통해 각 입장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지도상의 유의점

- (1) 수업이 시작될 때 토론 전개 방식이나 토론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학생들에게 미리 설명한다.
- (2) 토론을 지도할 때 모둠 내 토론, 모둠별 발표, 모둠끼리의 자유토론이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에 유의한다.
- (3) 모든 학생이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4) 교사는 가급적 토론에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대단원	4.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	차시	2/2
소단원	(3)수취 체제의 개편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학습 확인;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간략 설명. ·학습 목표 제시. ·토론식 수업의 진행과 방법 설명; 광해군 때 대동법 시행 여부를 두고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대동법 찬반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칠판에 기록. ·모둠별로 자리가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학습지 배부.
전개 (3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역할별로 도움말 제시. -광해군; 임진왜란 후 즉위한 광해군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과 국가운영의 정상화를 추구. 자신이 권한을 위임한 의정들이 건의한 대동법의 시행 결정. 그러나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대북세력을 포함한 거국적인 반대에 부딪힘. 그럼에도 광해군은 대동법을 최종 승인함. -관료; 임진왜란 때 백성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 국가 운영을 담당 관료로서 현실개선에 책임감을 느낌. 광해군에게 대동법을 건의하고 계속 지지함. -양반 지주; 전쟁 후 토지의 황폐화와 노비의 도망으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음. 전쟁으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위신이 실추됨. 공납은 원래 백성들이 내던 세금인데 대동법은 전결수가 기준이 되어 지주들이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함. -대북세력; 정인홍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 따라서 전쟁 당시 조정 관료들에 비판적. 광해군의 즉위에 공을 세움. 왕에게 자기들만이 군자당이라고 언급하며 다른 정치세력들을 공격하여 정계에서 배제함. 기자현은 방납으로 다른 관료들에게 공격받음. -백성; 전쟁이 일어나자 왕실과 조정은 피난을 떠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전체 발언자(1), 서기(1), 토론자(3)으로 모둠 내 역할 구성. ·모든 학생들이 모둠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산만해지거나 떠들지 않도록 지도. ·각 모둠별 발표자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제공. ·서기는 학습지를 작성하여 제

	<p>음. 전쟁으로 생존수단인 토지와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함. 전쟁 전부터 폐단이 많았던 공납을 전쟁이 끝나자 토산물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p> <p>·각 모둠 구성원들끼리 상의하여 입장별 주장과 근거를 정리.</p> <p>·5모듬의 발표자가 차례로 일어서서 자기 모듬의 역할의 입장을 설명.</p> <p>·자유토론; 모듬별로 다른 모듬에게 질문하고 대답.</p>	출하도록 지도,
정리 (10분)	<p>·수업내용 정리.</p> <p>·토론식 수업에 대한 평가.</p> <p>·차시 예고; (4)균역법의 시행.</p>	·학습지를 건어서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지도.

본시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는 전시 학습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이후 학생들에게 토론 수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후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학습지에 실린 사료를 각자 읽어보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 모듬별로 광해군·대북세력·관료·양반 지주·백성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 그 입장을 대변해야 함을 알린다. 그리고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모듬별로 서기 1명, 발표자 1명, 모듬장 1명, 토론자 2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이 역할 구분은 효율적인 수업진행을 위한 것으로 토론에는 모듬 멤버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후 교사는 5분간 학생들이 모듬이 맡은 입장과 관련된 사료를 읽고 모듬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지도한다. 5분 후 교사가 각 입장별로 도움말을 제공한다. 도움말은 학생들에게 전시 학습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당시 각 입장별 상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그 다음 교사는 10분 동안 모듬별로 각 입장에 따라 대동법 시행에 관련된 주장을 정하고, 관련 근거를 최소한 3개 이상 만들어내도록 지도한다.

10분 후 교사는 모듬별로 발표자가 일어나서 각 입장별 주장과 근거를 받

표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때 교사는 발표자가 하는 말에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발표자가 모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표 후,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모둠의 주장에 대해 모둠별로 5분간 토론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10분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교사는 각 모둠이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 대해 다른 모둠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지도한다. 만약 자유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사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표 4>대동법의 시행에 대한 탐구활동

학습활동지	
	<p>모둠; ()</p> <p>모둠 입장; ()</p> <p>모둠장 (), 서기 (), 발표자 (), 토론자 (), ()</p>
	<p>* 광해군 관련 사료</p> <p>“목전의 긴박한 일을 가지고 말하여 분다면 백성들의 일이 매우 안쓰럽고 측은하기 그지없다. (중략) 구휼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는다면 방본이 먼저 동요되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니, 경들은 백방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일 푼의 은혜라도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p> <p>예컨대 해묵은 포흠, 급하지 않은 공부, 군졸들의 도고, 세도를 부리는 호강들의 침릉은 물론 이밖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모든 폐단은 일체 견감하고 개혁시켜 혹시라도 폐단이 되는 일이 없게 하라. 공상하는 방물과 내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감하겠다. (중략)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이르라.”</p> <p style="text-align: right;">- 『광해군일기』 1권, 광해 즉위년 2월 23일 경진-</p>
	<p>* 기자현에 대한 사료</p> <p>홍문관 <부제학 정광적(鄭光績), 전한 남이공(南以恭) (중략) 등이> 상차하기를,</p> <p>“ 좌의정 기자현은 기인(其人)의 공물에도 몸소 방납하였는가 하면 백성들의</p>

집터를 공공연히 빼앗아 널리 저택을 세 군데나 지었으며, 뇌물이 폭주하여 문 앞이 저자 거리와 같았습니다. 왕위를 이는 처음에 다시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일이 날로 그릇되고 인심의 실망이 그지없었습니다. (중략) 하늘에 이른 죄를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아울러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람을 다스림에는 적당하게 하고 그쳐야 마음을 승복시키고 악을 징계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중도(中道)에 지나치면 왕법에 어긋난다. (중략) 좌상이 어찌 이와 같을 리 있겠는가. 대신은 일반 관원과 같지 않으니, 가볍게 논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광해군일기』(중초본) 3권, 광해 즉위년 4월 21일 정축-

* 이원익에 대한 사료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였다. 전에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사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거두는 16말 가운데 매번 1말씩을 감하여 해당 고을에 주어 수령의 공사비용으로 삼게 하고, 또한 일로(一路) 결의 고을은 사객이 많으니 덧붙인 수를 감하고 주어 1년에 두 번 쌀을 거두는 외에는 백성들에게서 한 되라도 더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오직 산릉과 조사의 일에는 이러한 제한에 구애되지 말고 한결같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4권, 광해 즉위년 5월 7일 임진-

* 양반 지주와 백성에 대한 사료

선혜청이 아뢰기를,

“왕위를 이으신 처음 백성들이 모두 눈을 씻고 그들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급박한 생활을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들을 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평일에 백성의 힘을 거둬 곤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공물을 징수하는 폐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중략) 백성들이 그 이익을 받았고 한번 쌀을 낸 뒤에는 차사의 침학

징수하는 폐단이 촌간에서 영영 끊어졌으므로 백성들이 다행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이 한번 설치되자 지난날 방납(防納)하던 모리배들은 다들 원수로 여기고 있으며, 그 뿐만이 아니라 각읍의 향리들이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 수령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사의 하인과 경영(京營)의 하인들도 다 좋아하지 않으며, 세력 있는 양반으로 전결(田結)이 많으면서 부역을 적게 나가던 자들은 모두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크게 다행으로 여기고 매우 편하게 여기는 자들은 가난한 양반과 소민들뿐입니다. (중략)

근래 들으니 외방의 민간들은 선혜청을 이미 혁파했다고 시끄럽게 전파하고 있고 경기 고을 백성들은 서로의 약속을 통문(通文)하여 장차 쉼문에 나가 호소하려 한다고 하며, 열읍의 양반·백성들도 이미 그들의 뜻을 호소하는 상소를 정원에 올려 하소연하는 등,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호소해 온다고 합니다. (중략) 이토록 백성의 간절한 이해에 관계되니, 본청의 일이 비록 오랜 세월을 두고 영원히 시행할 법은 아니더라도 백성들의 한때 곤궁함을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는 관계됨이 작지 않습니다.”

-『광해군일기』 25권, 광해 2년 2월 5일 신해-

***주제; 대동법에 대한 찬반 토론**

1. 위의 사료에서 각 모듈별 입장에 관한 부분을 찾아 읽고, 대동법 시행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주장;

근거

(1)

(2)

(3)

2. 다른 모둠의 입장발표를 듣고,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모둠/입장	지지하는 점	비판하는 점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를 앞으로써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는 위해서이다. 또한 역사를 배우는 스스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자각하고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⁷⁹⁾ 본 연구는 광해군 시기의 대동법 시행에 대한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높아지고 논쟁·비판·설득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를 기대한다.

79) 김한중,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세상, 2002, 36~37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V. 맺음말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으며 토지는 황무지화 되었다. 백성들은 전쟁으로 삶의 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생존조차 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왕실과 관료들은 전쟁에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백성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 주어 국가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자신들의 권위를 다시 되찾아야 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전격적으로 세자로 책봉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광해군은 피난을 떠난 후 망명을 시도하는 선조 대신 분조를 이끌며 항진활동을 펼쳤다. 이로 인해 광해군은 관료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권위가 실추된 선조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 명의 책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창대군까지 태어나자 광해군은 세자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이에 따라 광해군에게는 자신의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해 줄 정치세력의 지지가 필요하였다. 이때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정인홍·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세력이 광해군을 지지하였다.

광해군은 왕이 된 후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국가를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무 경험이 많고 초당파적인 이원익·이항복·이덕형을 의정으로 중용하여 개혁정국을 이끌어나갔다. 이로 인해 광해군 초기의 정국에는 대북세력과 개혁을 이끄는 초당파적 정치세력이 양립하게 되었다.

즉위년인 1608년에 광해군은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를 수용하여 공납제를 개혁해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여러 사회의 폐단 중 공납제를 먼저 개혁한 것은 당시 국가재정 수입원에서 공물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방납의 폐단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대동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대동법은 이이·유성룡 등 앞선 관료들의 공납제 개혁안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방납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에서 확산되던 사대동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광해군 연간에 대동법은 경기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원래 규정이 미비했던 공납을 전결수에 따라 1결당 균등하게 쌀 16말만을 내도록 한 점은 대동법이 이룬 중요한 성과였다. 이로 인해 대동법은 공납부담이 감소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방납으로 이익을 보던 세력과 기존에 공납을 부담하지 않았던 양반 지주들은 대동법에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대동법은 처음 시행된 후 100여년이 지난 숙종 연간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시기 정치의 개혁적인 모습은 계속 진행되지 못하였다. 대북세력이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세력과의 공존보다 정치권력의 독점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북세력이 주도하고 조작·확대시킨 옥사들로 인해 임해군과 영창대군이 살해되고 인목대비가 유폐되었다. 대동법 시행을 추진했던 중진 관료들도 파직·유배에 처해졌다. 결국 대북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정계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내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외교 문제가 불거졌다. 광해군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명과 후금과의 외교에서 후금을 견제하되, 대화를 시도하는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주장하며 후금과의 대화조차 반대하는 양반 지주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광해군은 인경궁·경덕궁 등의 궁궐공사를 무리하게 벌였다. 이로 인해 공사에 세금과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던 백성들의 고초가 심하였다. 이로 인해 지지기반을 잃어버리게 된 광해군은 결국 서인세력과 인조가 주도하여 일으킨 반정으로 폐위되었다.

학생들이 광해군 시기의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역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 광해군 시기의 정치 부분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광해군 시기의 정치’, ‘대동법의 시행’, ‘인조반정’ 세 부분에 나누어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한 교과서 기술은 대부분 외교에 치우쳐 있었고 ‘실리적인 외교’를 ‘중립외교’로, ‘폐모론’을 ‘폐모’로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대동법의 시행’ 부분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시행된 배경의 정치적 함의나 광해군 때 전격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인조반정’ 부분은 선조·광해군 연간의 정치세력의 변동을 기술하였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붕당의 형성과 당파세력의 분열을 연계성 있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일목요연하게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8종 교과서들은 광해군 시기의 정치에 대하여 외교·정치세력·경제 부분으로 나누어 연계성을 무시한 채 분절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대동법의 시행, 외교정책 추진, 정치세력의 변동은 모두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광해군 시기에 일어난 각 부분의 일은 광해군 시기의 정치라는 커다란 틀 아래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해군 시기의 정치’, 그중에서도 대동법의 시행에 대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토론식 수업을 제시하였다. 토론식 수업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 다음,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과 논쟁하며 이해력·비판력을 증대시키는 교육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동법 시행과 관련 있는 광해군과 관료, 양반 지주들과 백성 각 입장별로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식 수업의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 모듈별 토론식 수업은 학생들이 자기 모듈의 입장을 주장하며

다른 모둠을 설득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수업은 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나 일반 역사서를 읽을 때보다 좀 더 광해군 시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꽤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대동법 시행에 관해 자기 주관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I. 1차 자료

《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선조실록』

《교과서》

권희영 외, 『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2014.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 2014.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4.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14.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4.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4.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 2014.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4.

II. 2차 자료

《단행본》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III, 일조각, 1997.

김한중,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책세상, 200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4·29·30, 1994.

남명학 연구원, 『남명학연구원총서』 2, 예문서원, 2008.

박도식, 『조선 전기 공납제의 운영』, 태학사, 2015.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14.

서민교 외, 『일본사』, 대한교과서, 2005.

이정철, 『대동법-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4.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최완기, 『역사교육과 학습내용의 선정』, 느티나무, 2003.
 최완기, 『역사학습지도의 원리와 실제』, 느티나무, 1997.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2003.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7.

《논문》

- 김광린, 「조선 광해군정부의 평화주의 외교정책」, 『평화학논총』 3, 2013.
 김성우, 「광해군 치세 3기 국가재정 수요의 급증과 농민경제의 붕괴」, 『대구사학』 118, 2015.
 김운곤,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싼 찬반양론과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78, 1971.
 김정운, 「정탁의 『용사일기』와 왜란 극복 활동」, 『한국 사상과 문화』 62,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김현영,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사학사학회』 26, 2012.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1984.
 구덕희, 「선조대 후반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1988.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 외교노선 논쟁의 실제와 그 성격」, 『역사학보』, 2007.
 계승범, 「계해정변의 명분과 그 인식의 변화」,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계승범, 「세자 광해군-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2013.
 계승범, 「광해군의 대외정책과 그 논쟁의 성격」, 『한국불교사연구』 4, 2014.
 남도영, 「임란 때 광해군 분조활동 재조명」, 『국사관논총』 9, 1989.
 민덕기, 「임진왜란의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한국사학보』 46, 2012.
 신명호, 「선조말·광해군초의 정국과 외척」, 『청계사학』 10, 1993.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군사』 81, 2011.

- 신병주, 「북인학파의 연원과 사상, 그리고 현실인식」, 『한국철학논집』 32, 2011.
- 신병주, 「선조에서 인조대의 정국과 이원익의 정치활동」, 『동국사학』 53, 2012.
- 신병주, 「광해군대의 정국과 이덕형의 정치, 외교활동」, 『조선시대사학회』 67, 2013.
- 이정철, 「오리 이원익과 두 번의 공물변통」,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 이정철, 「광해군 대 경기선혜법 성립과 확대 요구」, 『한국불교사연구』, 2015.
- 이희환, 「광해군대의 정국과 이이첨」, 『전북사학』 38, 2011.
- 오이환, 「광해군 초기의 정인홍」, 『퇴계학과 유교문화』 41, 2007.
- 우인수, 「조선 선조대 남북 분당과 내암 정인홍」, 『역사와 경계』 81, 2011.
- 장지연, 「광해군대 궁궐영건」, 『한국학보』 86호, 1997.
- 지두환, 「선조·광해군대 대동법 논의」, 『한국사논총』 19, 1997.
- 한명기, 「광해군-외교의 빛과 내정의 그림자」, 『한국사 시민강좌』 31, 2002.
- 한명기, 「광해군의 대외정책 재론」, 『한국불교사연구』 2, 2013.
- 한명기, 「광해군대의 대북세력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 20, 1988.

ABSTRACT

The Education Method about Politics during Gwanghaegun Regime

Ha Yu Ra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n the late 16th century had a great influence on Joseon society. Leading people of the society including royal family couldn't be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war that left tremendous damages in the society. Therefore, they had to find methods to recover their authority by stabilizing the society and regaining people's trust after the war ended. On the other hand, people were put to the situation that they had to pay a lot of taxes although they lost foundation of existence such as land and labor force.

Gwanghaegun executed war resistance activities leading Bunjo during the war. After coming to throne, he made it priority to reduce difficulties of people in order to operate Joseon society normally. Therefore, he appointed nonpartisan officials who have many experiences and developed innovation with them. With suggestion by Lee Won Ik, a prime minister

of the Joseon dynasty, and decision by Gwanghaegun, the public impost system was reformed, and Daedongbeob was enacted. This was the result of difficult decision opposed by the north advancing group and noble landowners, who contributed to his enthronement.

The reason the reform of the public impost system was taken importantly was there were great negative effects of bangnab, in the situation that a tribute accounted for the most portion among the sources of national income. Daedongbeob was established after sadaedong, which was autonomically operated as the alternative of bangnab among people, became the national system. The daedongbeob was enacted only in Gyeonggi region. However, there were very important accomplishments in that the tributes that had no distinct regulation was set to be 16 mal of rice per 1 tax unit according to the whole tax units, and in that landowners had to pay the tributes so common people's burdens were reduced.

However, political reform during Gwanghaegun regime couldn't last long. The north advancing group pursued monopoly of power instead of coexistence with other political groups. The north advancing group led administration of the major criminal cases, and furthermore, they manipulated and expanded it only to exclude other political groups from the politics. As a result of continuing administration of the major criminal cases, Imhaegun and Yeongchangdaegun were killed, and Inmokdaebi was incarcerated. In this situation, Gwanghaegun developed practical diplomacy trying to talk to Post-Jin Dynasty in the diplomacy with Ming Dynasty and Post-Jin Dynasty. However, his diplomacy

sparkled a strong opposition of Yangban noble people who opposed to talking to Post-Jin Dynasty by saying they had to repay Ming's favor. In addition, Gwanghaegun lost popularity when he built palace by imposing separate taxes. He was gradually losing his foundation of support, was isolated from officials and was dethroned by Injo Restoration.

To 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Gwanghaegun regime, especially the meaning of daedongbeob operated as one of the political reforms, students should have the understanding of overall history of the period firs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Gwanghaegun regime was comprehensively organized. Next,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how 8 high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describe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is period and suggested improvement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a debate class to teach the political situation of Gwanghaegun period effectively. Setting up the enactment of daedongbeob as a debate topic, the study made each student group represent the king, officials, landowners and common people in order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eriod more profoundly.